

소나무 나라 여행



이 천 용
임업연구원 연구관

우리 나라 국민이 가장 좋아하는 소나무는 전국 산림의 39%를 차지하고 있어 우리 생활과 상당히 친숙하고 목재로도 중요한 나무입니다. 초록의

앞과 붉은 수피를 입고 우람하게 하늘로 솟은 소나무는 강직한 민족의 기상을 그대로 나타내는 한민족의 상징입니다. 원래 척박한 곳을 좋아해서 황폐한 곳에서도 유일하게 자태를 뽐내며 자라고 있습니다만 산림이 점차 우거짐에 따라 그늘을 싫어하는 소나무는 활엽수와의 경쟁으로 점차 쇠퇴하거나 솔잎혹파리 등 해충의 피해로 그 자리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때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한민족의 문화적 배경이나 생활 전통 속에 뿌리내리고 있는 소

나무의 비중을 감안할 때 가보아야 할, 그리고 가볼 만한 소나무와 소나무숲으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소나무에 관련된 연구는 많지만 임업의 중심이며 역사의 반려자인 소나무와 소나무숲을 자세히 소개한 글은 그렇게 많지 않은 듯 합니다. 그래서 필자는 전국에 흩어져 있는 소나무숲을 탐방하므로써 각처에 있는 소나무 숲을 발굴 소개하고, 소나무가 주는 느낌을 전달하여 소나무를 사랑하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연재하는 동안 아름다운 소나무 숲이나 노거수가 있으면 필자(전화 02)9612-758, 팩스 9612-543)에게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편의상 필자 나름대로 소나무에 이름을 붙인 것도 있으며 추후 도별로 지도를 그려 상세히 안내할 생각입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성원을 바랍니다.

1. 경남 합천 묘산면 화양리의 구룡 소나무

합천군 소재지에서 26번 국도를 타고 해인사 방향으로 수 km 가면 아무런 이정표가 없



묘산 소나무의 위용

어 할 수 없이 화양리 쪽 와서 주민에게 천연기념물 소나무의 위치를 물어보았다. 왼쪽 산으로 올라가는 시멘트 포장도로는 차 한 대가 겨우 지나갈 만큼 좁아 천연기념물이 있는 곳으로 제대로 가는 것인지 의구심이 들 정도다. 계속해서 따라가면 새로 축조한 재실이 나오고 재실 위로 난 산길을 구불구불 4km쯤 올라가야 한다. 말이야 이렇게 쉽지만 초행으로 산속끝에 소나무가 있는지 확신이 가지 않는다. 중간에 세 번 쯤 길을 물은 것은 필자가 평소에 길눈이 어두운 탓도 있겠지만 지도대로 찾아가기는 20여년의 경험으로 잘 하는데 여긴 참 찾기 어려운 곳이다. 산으로 오르는 길 양쪽에는 평야가 많은 호남과는 달리 평지가 부족해서인지 작은 다락논이 널려 있고 많은 밭이 땅이 묵 밭이다. 좁은 산길 끝에 비교적 넓은 곳이 나오며 드디어 마을앞 초록빛이 눈부신 논 가운데 사진찍기도 좋게 위풍당당한 소나무 한 그루가 서 있다. 1982년에 천연기념물 289호로 지정된 나무이다. 산림학자가 아니라면 굳이 찾을 필요도 없고 정말 가보기 어려운 곳에 사는 소나무는 해발 500미터 높이에 있어 한 여름에도 시원하거니와 아래 세상을 인고의 세월속에 쳐다보며 살아가는 듯하다. 소나무 바로 옆에는 적은 물이 흐르는 개천이 있어

이 나무가 물길을 돌리고 있다. 400살로 추정되는 묘산소나무는 높이가 18미터로서 비교적 크지만 위낙 줄기가 넓게 퍼져 안정감과 수려함을 동시에 나타낸다. 나무 옆에는 지름 7미터정도의 원형으로 편평하게 만들어 놓았는데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후 문화재 관리하는 직원이 나무를 건강하게 하려고 퇴비를 넣고 흙을 돋았다

고 한다. 이제는 나무그늘로 인해 쉼터가 되었는데 북쪽 논이 있는 곳에서 보면 키가 2미터는 더 크다. 가슴높이 줄기의 직경은 55미터로서 어른 셋이 둘러야 할 정도로 굵고, 단을 쌓은 곳에서 보면 1미터 높이에서 직경 1미터쯤의 줄기가 넷으로 가라져서 가지 이 끝에서 저 끝까지 25미터정도 가지가 퍼져 있다. 맨 끝가지는 지



푸른 눈을 배경으로 서 있는 소나무



수피



휴양시설을 둘러싼 소나무 숲

상에서 1미터 높이까지 쳐져 있지만 줄기가 찢어질까봐 쇠기둥을 5군데나 받쳤다. 특히 논쪽으로 난 가지는 너무 길어 중간에 배어버린 것이 상당히 아쉬움이 남는다. 밑둥의 북쪽에는 솔이끼가 연녹색을 띠고 싱싱하게 살고 있으며 여느 고목이 그렇듯이 이 소나무도 당목으로 추대되어 새끼가 동여메어 있다. 소나무 서쪽에 직경 40cm 정도의 소나무가 자라고 있다.

조선 광해군 4년(1612년) 연흥 부원군 김제남이 영창대군을 추대하려 한다는 무고를 받고 역적으로 몰려 삼죽이 멸하자 사촌 동생이 화를 피하기 위해 이곳으로 와서 소나무아래 집을 짓고 살기 시작하여 일가를 이루었다고 한다. 진짜 오지에 위치한 나곡 마을에는 수십년 전만 해도 40여 가구가 살았지만 다른 농촌과 다름없이 젊은이들이 다 떠나서 지금은 10가구만 남아 있다. 특히

연안 김씨는 불행하게도 손이 귀하여 겨우 명맥을 유지하다가 현재는 한 가구만 남아 있다. 이 사람이 피난 왔을 때에 이미 큰 나무였을 것이라고 추정하면 현재 400년이라고 한 것보다는 100여년은 더 되지 않았나 싶다.

1976년 천연기념물로 지정되기 전 바로 이웃에 이 소나무보다 크고 멋진 일곱 갈래의 소나무가 있었는데 잎이 빨갛게 변하여 죽어버려 그 이유를 몰랐지만 당시 이장이었던 오인수(吳仁洙) 할아버지(현재 71세)가 군청에 말해 솔잎혹파리 피해임을 구명하고 수간주사를 하였더니 다시 건강을 찾았다고 한다. 그후 매년 2회씩 해충을 구제하여 솔잎의 길이가 7cm 정도로 건강하다. 한 가지 아쉬운 것은 한 소나무가 죽은 다음에야 그 이유를 안 것인데 어쨌든 한 그루라도 살려 천연기념물을 만들었으니 오지 사람들도 외부사람을 쉽게 볼 수

있게 한 계기가 되었다.

2. 강원 명주 대관령 소나무 숲

소나무는 도시에서도 콘크리트 구조물의 딱딱함을 완화시켜주기 위하여 많이 식재되어 있어서 그 어떤 나무보다 우리와 밀접하다. 민족 역사와 고락을 같이하면서 한국문화 곳곳에 뿌리를 내리고 있으니 새삼스럽게 나라나무로 지정할 것 없이 대표적인 나무이다. 소나무는 쓸모도 많지만 값도 비싸 강원도 지역의 100년생 소나무 한 그루는 궁궐 보수용으로 쓰이면서 독일 참나무 한 그루가 벤츠 한 대 값을 한다고 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지만 그래도 마티스 한 대 값은 되지 않을까 싶다. 또한 구부러진 소나무도 부드러운 곡선과 붉은 껍질을 자랑하면서 도시로 진출하면 그 값 역시 만만치 않다. 나무중의 왕이요 으뜸이다. 특히 강원도 소나무는 강송이라는 다른 이름을 갖고 있으며 내륙의 소나무와 생김새가 다르다. 우선 미끈하고 색깔이 붉다. 솔잎혹파리라는 무서운 해충으로부터 의연히 견디고 수천년을 살아온 탓인지 꾀꿍하다. 그래서 소나무숲은 인간에게 쾌적한 안식을 제공하는 가장 좋은 장소이다.

대관령 휴양림은 가장 잘 알려진 소나무 숲 휴양림이다. 대관령을 거의 다 내려와서 고개 아래 처음 닿는 마을 어흘리



빽빽한 소나무 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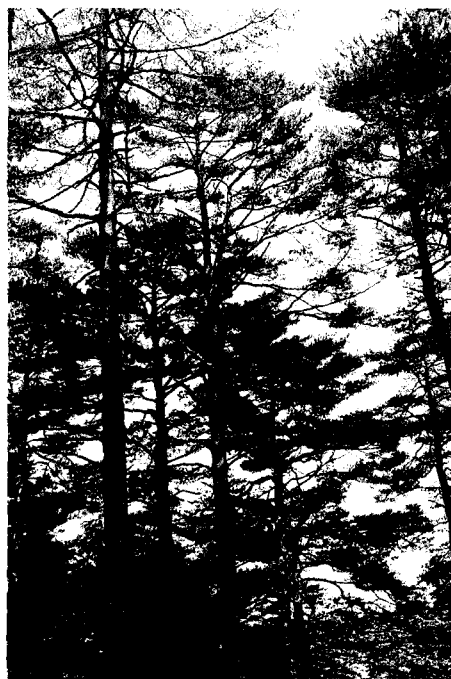
버스정류장을 끼고 오른쪽으로 접어드니 대형버스는 다닐 수 없게 좁고 구부러진 길이 수년 전과 조금도 변함없이 나타나고 수 없는 과속방지턱을 넘다 보면 통나무로 멋지게 지은 매표소가 보인다. 입구에서 둘로 갈라진 길 중 먼저 윗길로 갔다.

상당히 가파른 길은 반대편에서 오는 차를 피할 곳도 없어 긴장을 하며 달린다. 울창한 소나무 숲 길 주변에는 군데군데 슈아 벤 아름답디 나무가 쌓여 있었으며 그런 덕분에 숲안은 상당히 환하였다. 헥타르당 450㎡이상 부피가 들어 있다는 소나무 숲은 수년전 와서 보았던 그것과는 다르게 조금은 노쇠한 듯하고 더구나 참나무류가 소나무 사이로 우뚝 솟아 찬란한 햇빛에 잎을 살랑거리는 모습이 늙음과 젊음의 대조를 이루는 것 같았다. 멋진 소나무 숲을 찍으려고 수련장 부근의 숲을 카메라 렌즈에 이

리저리 담아 보았지만 소나무 아래에는 다른 나무가 침입하여 절반쯤을 가리고 있어 소나무 전체를 찍기가 어려웠다. 끊임없이 변하는 숲이 실감난다.

매표소로 돌아 나오는 길에 베어놓은 소나무를 보고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얼마나 시원하겠나하는 생각이 들었다. 왜냐하면 수년전 동해안 해안도로를 따라 북상할 때 소나무가 얼마나 뻗뻗하던지 한여름에 오히려 내가 더울 지경에 있었던 기억이 나기 때문이다. 그때의 답답한 심정은 나무와 대화를 하지 못한 사람은 모른다.

곧게 뻗어 하늘을 찌를 듯한 소나무는 사람 키 높이부터는 황토를 뒤집어 쓴 것 같이 붉은 광화(光華)를 내뿜고 있다. 그 붉은 빛이 강렬하게 와 닿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빛이 소나무전체를 휘감고 있어야 더욱 소나무답다는 욕심은 왜



슈아베기를 해 준 소나무 숲

생길까. 나무와 대화를 하면서 숲과 나무에 정신과 육체가 몰입된다.

입구로 내려와 대관령 옛길로 들어서니 통나무집이 계곡을 따라 줄줄이 자리잡고 있다. 주변은 아직 소나무가 주인이지만 상당히 많은 활엽수가 틈을 엿보며 주인이 되려고 주위에서 힘을 모으며 대기한다. 어떤 이가 흘린 열쇠를 주어 통나무집을 구경한다. 넓지는 않으나 이곳에 하루 머물며 물소리를 벗하고 잠을 청하면 부족한 것이 없을 것 같다. 아쉬운 감정을 달래려 선비걸음으로 천천히 숲을 거닌다. 어슬렁거리며 나무를 보고 낙엽을 보며, 돌을 보고, 또 나무를 본다. 자연의 포근함을 맛본다. **조경수**